광 남 일 보

2025. 1. 22(수), 7면

“불확실한 금융환경…신시장 개척·지역밀착 강화”

광주은행, 상반기 4대 중점전략 발표
미래전략팀·외국인전략사업팀 가동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 특화 ESG 경영, 질적 성장에 힘쓰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합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올해 상반기 중점 전략을 발표했다.

고 은행장은 지난 20일 광주은행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열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4대 경영방향인 △미래 성장 동력 강화 △핵심 역량 강화 △지역 밀착·ESG 경영 고도화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경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상반기는 ‘상전벽해’의 금융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감한 리더십 추진을 통해 영업 자산 성장을 가속화해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을 당부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래전략팀과 외국인전략사업팀을 신설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기업금융센터, 거점별 WM 라운지, 외국인 전문 금융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맞춤형 채널 전략 추진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지역 밀착 경영 강화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 ESG 경영 확대, 핵심 사업을 통한 전략적 자산 증대 및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을 시상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임직원들의 세일즈 능력 향상을 위해 홈쇼핑 최다매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리얼세일즈㈜ 황현진 대표를 초청해 ‘내일이 그려지는 영업의 품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연합기술지주, 과기부 기술사업화 ‘대상’
투자기업 SOS LAB 코스닥 상장 성과 등 인정



광주연합기술지주가 기술사업화의 혁신적 성과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광주연합기술지주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202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년인사회’에서 기술사업화 지원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광주연합기술지주는 지역 대학의 우수기술을 산업에 성공적으로 접목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금까지 40개의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설립해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했으며, 한국벤처투자로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선정돼 3개 펀드 111억원을 조성하고, 31개 기업에 87억원을 투자하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연합기술지주가 투자한 SOS LAB은 지난해 6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SOS LAB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광주연합기술지주의 투자 전략과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증명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는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인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광주시의 세심한 지원 덕분에 ‘실증표준 도시, 광주’가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기술사업 분야의 투자금 확보를 위한 지역펀드 조성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연합기술지주는 우수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으로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고,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 전문인력 양성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대학교·부산대학교·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산학프로젝트 발굴 등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대학교·부산대학교·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이들 참여 대학은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협력한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됐는데 현재 11건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하남2캠퍼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서를 수여했다.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삼성전자 하남2캠퍼스 등 2곳 수여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하남2캠퍼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서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 공단이 객관적 평가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맞춤형 건강 고위험군 관리, 트라우마·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마음클리닉 운영, 화학물질 사전 안전성 평가, AI기술을 활용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노사가 함께 임직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술 및 활동 등을 접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은 “최근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며 “지역 내 대표기업의 추진활동 사례가 널리 전파돼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무 및 현장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도 건강증진활동 확대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및 유사특성의 사업장별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국세청, 목포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박광종 청장 “신고편의 제공”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목포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목포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박 청장은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신고의 경우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난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중흥그룹, 협력업체 공사대금 조기지급
1000억원 규모…“상생 통해 함께 성장”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대금은 1000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전국 30여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3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힘든 시기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은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캠페인을 지속 추진중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박경재 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당선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박경재 회장(상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사진)가 21일 서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선거에서 광주·전남·전북 선거구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조합 업무 집행에 대해 감독,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비롯한 예산 및 결산, 이사장·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이사의 임면인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박경재 회장의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는 내년 2월 22일까지다.

박경재 회장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직을 맡겨준 광주·전남·전북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기아 2023년 실적 분석
1차 중소·중견 협력사 매출 90조

현대차·기아에 부품을 직접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이 9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1차 협력사 237곳의 매출액이 지난 2023년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01년(21조1837억원) 대비 326% 증가한 수준으로 2023년 현대차 매출(78조338억원)보다도 크다.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액(136조5537억원)의 66% 수준이다. 5000여곳에 달하는 2, 3차 협력사까지 더하면 매출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협력사들의 생산 유발효과는 237조8000억여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5조6000억여원, 취업 유발효과는 60만여명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이거나 부품 비전문 업체는 제외됐다.

평균 매출액은 2001년 733억원에서 2023년 3810억원으로 증가했고 매출 1000억원 이상 협력사 비중은 같은 기간 62곳(21%)에서 160곳(68%)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협력업체는 2001년 46곳에서 2023년 말 70곳으로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도 1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평균 자산규모는 509억원에서 3378억원으로 증가했고 평균 부채비율은 152%에서 110%로 낮아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협력사가 성장한 것은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른 물량 확대와 함께 현대차·기아 협력사라는 신뢰도를 활용해 다른 해외 완성차업체에도 공급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매출원을 창출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상생협력 프로그램(2조3708억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사와의 평균 거래 기간은 35년, 그중 40년 이상 거래한 업체 비중은 약 36%였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직·간접 금융 지원 및 자금 출연 등을 통해 총 2조3708억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2조원 이상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 주 매 일

2025. 1. 22(수), 13면

귀성 28일 오전·귀경 30일 오후 가장 붐빈다

설 명절 3천484만명 이동…설 당일 601만명 최대
긴 연휴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 작년比 7.7% ↓

올해 설 명절을 맞아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천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

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8천원)보다 약 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천112.7㎞)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천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귀경객 등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하락 21일 마감한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를 주시하며 2,510대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02 포인트(0.08%) 내린 2,518.03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5시30분 기준 2.2원 내린 1,439.5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1,440원대에서 거래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광융합산업진흥회-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 협약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 박차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협력키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코자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 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학점교류 협약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와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중견기업 50.4% "올해 투자 계획 없다"

중견련 설문…불확실한 시장·경영실적 악화가 주 원인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11-12월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투자 계획에 관한 물음에 응답 기업의 49.6%는 '있다'고 답했으나 그보다 많은 50.4%는 '없다'고 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과 경영 실적 악화(19.6%)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4 9.6% 가운데 작년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1.5%에 그쳤으며,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답은 35.8%, 투자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22.7%로 조사됐다.

올해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중견기업들은 그 이유로 내수시장 부진(40.0%), 경기 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0%), 고금리·자금조달 애로(7.8%) 등을 들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해외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9.6%에 그쳤다. 국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70.0%,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은 37.0%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이 꼽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고 노동, 환경, 세제 등 법·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실효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농협광주본부,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21일 "최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회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받고 있는 고령·취약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우리쌀로 만든 떡국떡과 사골육수로 구성된 꾸러미 250개를 정성껏 포장해 직접 전달해 드리며 안부를 확인했다.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는 43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중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며 따듯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고령·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 입교설명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21일 "오는 23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2025년 청년창업가 입교생(지원기업) 모집을 위한 입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다음달 12일까지 45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예비창업가 포함)이다.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와 초격차, 신산업 분야 등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1년 동안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일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 사업으로 광주 지역에서 지난해 ㈜에스오에스랩 등 코스닥 상장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으로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보조금과 창업코칭,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정은솔 기자



무 등 일 보

2025. 1. 22(수), 12면

"과감한 리더십으로 자산 성장 가속"

광주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미래성장·ESG 등 4대 방침
지역 밀착 상생 금융도 확대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감한 리더십으로 영업자산 성장을 가속화해 리딩뱅크로 도약하겠습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난 20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지난 20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열린 '2025년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수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을 시상하며,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임직원들의 세일즈 능력 향상을 위해 홈쇼핑 최다매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황현진 리얼세일즈㈜ 대표를 초청해 '내일이 그려지는 영업의 품격' 특강을 진행했다.

본 회의에서 고 은행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의 금융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4대 경영 방향으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 ▲핵심 역량 강화 ▲지역 밀착·ESG 경영 고도화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 경영 추진을 강조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래전략팀과 외국인전략사업팀을 신설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미래 성장 동력 강화, 기업금융센터·거점별 WM 라운지·외국인 전문 금융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맞춤형 채널 전략 추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지역 밀착 경영 강화·상생 금융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 ESG 경영 확대, 핵심 사업을 통한 전략적 자산 증대,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조3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발 빠르게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총 4천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박경재 건협도회장, 공제조합 위원 당선

광주·전남·북… 내년 2월까지
"조합원 권익 보호 최우선 노력"



박경재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회장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재 회장은 21일 서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선거에서 광주·전남·북 선거구 운영위원으로 당선됐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업무의 집행에 대해 감독,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비롯한 예산 및 결산, 이사장·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이사의 임면 인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박 회장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직을 맡게 해주신 광주·전남·전북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기동안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회장의 건설공제 조합 운영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현장 점검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목포서 방문
"방문 납세자 불편 없게 편의 제공"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목포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21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박광종 청장은 이날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신고안내 담당 직원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또 재난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중소기업 등 31일까지 환급 신고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현대 '더 뉴 파비스' 판매

무시동 에어컨 등 사양 개선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이 향상된 대표 중형 트럭 2025 더 뉴 파비스를 21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 2019년 8월 첫 출시된 파비스는 여러 고객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 라인업과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편의사양을 바탕으로 상용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25 더 뉴 파비스는 시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각종 편의사양을 추가 및 개선하고 트림별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차는 장시간 차량에서 머무는 운전자들을 위해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무시동 에어컨 및 230Ah 대용량 배터리'를 신규 옵션으로 운영한다.

루프 상단에 장착되는 무시동 에어컨은 배터리를 활용해 주차 중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도 최대 8시간 동안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연료 소비를 줄여 고객에게 효율적인 휴식을 제공한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 인재 키운다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 협약
학점 교류로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조선대·부산대·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레이저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제공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조선대·부산대·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광융합산업진흥회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대학원들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광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국내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활성화, 레이저·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 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총 63억원가량을 들여 레이저와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 270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지금까지 11건을 운영하였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3개 대학원과 체결한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중흥그룹, 공사대금 1천억 조기 지급

협력업체 원활한 자금 운용 지원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천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전국 30여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천3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은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뉴 스 1

2025. 1. 21(화)

뉴스1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부산대·인하대와 학점교류 협약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본격 시동

조영석 기자

2025.01.21 오전 10:17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관계자들이 '학점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이있다.(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이들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2025. 1. 21(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김재홍 기자 | 승인 2025.01.21 10:20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본격 시동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재홍 기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사진=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 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현재 11건을 운영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 시 스

2025. 1. 21(화)

뉴시스 지방 > 광주/전남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본격 시동

등록 2025.01.21 10:24:32



[광주=뉴시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1층 세미나실에서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점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이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 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현재 11건을 운영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 스 워 커

2025. 1. 21(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학점교류 협약체결식' 개최

조준성 기자 | 승인 2025.01.21 11:10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본격 시동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6일에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 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는데 현재 11건을 운영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준성 기자 2580@newsworker.co.kr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 도 일 보

2025. 1. 21(화)

남도일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 전문인력 양성 나섰다

김용석 기자 | 승인 2025.01.21 11:32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상호 학점교류 업무협약 체결
5년간 63억 들여 270명 인재육성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레이저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점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제공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레이저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점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점교류 업무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 일환 진행됐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대학 대학원은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 등에 협력한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63억원을 투자해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 270명 육성한다.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를 비롯해 현장실습, 멘토링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산학 프로젝트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11건의 산업 현장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남 일 보

2025. 1. 21(화)

全南日報

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 등과 학점교류 협약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목적

2025년 01월 21일(화) 13:35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제공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는 사업으로,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현재 11건을 운영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이 기사는 전남일보 홈페이지(**https://www.jn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기사 URL : https://www.jnilbo.com/75972549232 |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22일 09:45:17

헤럴드경제

2025. 1. 21(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 전문인력 키운다

2025-01-21 14:12:52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레이저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점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레이저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점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점교류 업무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 일환 진행됐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대학 대학원은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 등에 협력한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63억원을 투자해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 270명 육성한다.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를 비롯해 현장실습, 멘토링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산학 프로젝트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11건의 산업 현장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03807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전 기 신 문

2025. 1. 21(화)

전기신문 since1964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3개 대학원과 레이저기술 학점교류 협약

강수진 기자 | 승인 2025.01.21 15:47 | 호수 4363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협력, 270명 전문인력 양성 목표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레이저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흥회는 지난 16일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3개 대학은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63억원 규모로 석·박사 인재 270명을 양성하고, 단기 교육과정, 산학 프로젝트, 교과목 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인재를 육성한다.

또 18개 레이저 관련 기업과 협력해 현장 실습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9명이 혜택을 받았다.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는 데 지원하고 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레이저기술이 우주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기술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 간 협력이 학생들에게 더 넓은 진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sjkang17@electimes.com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남 매 일

2025. 1. 21(화)

전남매일

한국광융합진흥회,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시동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 mou

2025년 01월 21일(화) 16:24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최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상호간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제공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조선대·부산대·인하대 대학원과 상호간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 기관·대학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학생이 직접 참여해 현장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산학 프로젝트는 현재 11건을 운영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뒤로 프린트 메일 스크랩 위로

실시간뉴스
1 조선대-와이에스티㈜, '
2 호남대 일자리플러스센
3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
4 온 마을이 '돌봄 공백' 메
5 5·18 민주묘지 '신묘역
6 "탄핵 정국에 민생경제
7 "'경기 한파' 내수 진작
8 "화정아이파크 참사 1심
9 양동시장에 148면 연합
10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

많이 본뉴스
1 16년만 광주서 열리는대
2 "최악 민생경제 살리자"
3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
4 조선대-와이에스티㈜, '
5 "'경기 한파' 내수 진작
6 호남대 일자리플러스센
7 양동시장에 148면 연합
8 다시 드리워진 바이러스
9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
10 "화정아이파크 참사 1심

자치
"탄핵 정국에 민생경제 위기…
"시민이 주권자
현실화해 대한민
다지겠습니다."
양동시장에 148면 연합공영주차
광주 서구는 양
에게 쾌적하고
공하기 위해 4층

전매인터뷰
"시민 체감 의정활동 앞장…광주
'시민의 눈으로
의회'를 후반기
시의회는 민생
"'광주'라는 이름의 무게 인식…
지난해 광주는
을 겪었다. 가족
오가고 상주를

의 학 신 문

2025. 1. 21(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기술 인력 양성 협약 체결

차원준 기자 | 승인 2025.01.21 17:23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3개 대학원 간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하고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본격 시동

이번 협약은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이래 5년간 약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 270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18개의 대·중·소기업이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참여하는 콘소시엄 형태로 협력하고 있으며, 작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9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11건이 운영 중이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은 레이저기술이 다양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 간 협력이 단순한 교육 협력을 넘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는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주 국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